## 현장시선

#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 안전대책 세워야한다

**변 순 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지난달 설명 절을 앞두고 제주시 오일장에 갔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곡물은 중국 표기가 많았고, 캐나다, 칠레, 호주, 미국산도 있었다. 방송에서 카무트가 여러 가지로 좋다고 나왔다며 곳곳에 놓여 있어 빠른 정보에 놀랐다. 대형 상점의 깔끔하고 예쁜 포장은 아니만, 가격이나 품질은 좋아 보였다. 날씨가 추운 오전인데도 사람들은 떨이, 덤, 단골이란 낱말들을 사용하며 흥정하고 있어 정겹게 여겨졌다. 마트에서는 카트를 끌고 줄을 서서 수납원이 계산기를 대기만 하면 바로 가격이 찍히고 값을 내면 시간이 절약되어 좋은 점도 있다. 이런 마트나 오일시장 같이 대면하는 곳은 정기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많이 나간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매체 속의 소비환경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MZ세대들은 대면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 보다는 실시간 방송 판매나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고 즐기고 이런 공간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기성세대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실제 소비활동보다는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서비스 콘텐츠로 여기는 것 같다.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빠져있는 사이에 오프라인 쇼핑이 움츠러들었다. 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하며, 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모바일 소통과 거래에 익숙해지고 바뀐 소비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예전엔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마음에 든 상품이 있으면 080-xxxx-xxx 번호를 누른 다음에 상담사와 연결하고, 방송 중 상품이 맞는지 결제 방법을 물어보고 카드번호를 말하거나 입금 계좌를 받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웹 카드로 바로바로 결제까지 해버린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진행자가 각종 상품 사용과 조리 방법 등을 시연하고 진행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며 구매 의욕을 돋우는 방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선을 보였고, 인플루언서와 같은 개념의 생산자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다. 마치 홈쇼핑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안의 홈쇼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러한 소비환경들은 직접 대면 접촉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등 실행력 있는 감시활동이 없어서다. 거짓, 과장, 충동구매 조장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의 콘텐츠 제작, 구성, 송출과 관련한 단속 활동 강화는 물론 공정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시간 방송 판매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만들기에 힘써야겠다.

## 사설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근본대책 없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올해 봄이나 여름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어서 걱정이 말이 아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업계의 피해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은 수산물수급안정기금 등 보상 형식의 대안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에서 7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물의 예상 피해액이 4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도내 수산물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원전 오염수가 제주로 유입될 경우 제주 수산물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올해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는데도 정부나 제주도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그나마 제주도가 제시한 대책들도 시원치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억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10억원, 수급안정기금 100억원, 방사능 및 중금속 분석 1억원 등 보상적인 예산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적극 나서기는 커녕 뒷짐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우선 수산물 피해 대책부터 마련해 어업인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 우주산업 육성 블록체인 반면교사 삼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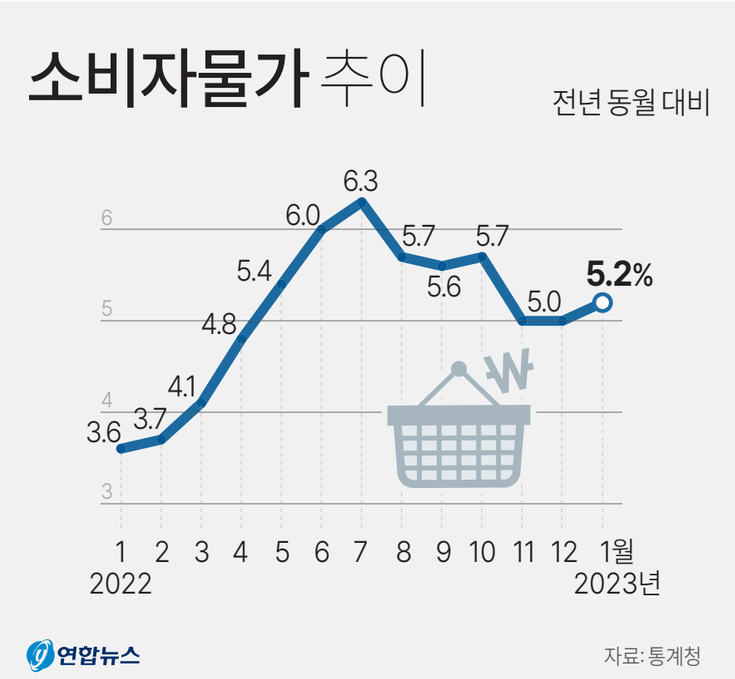
오영훈 제주도정이 그제 민간 우주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는 전파 간섭과 공역의 제한이 적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육성 5대 추진전략으로 제주 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민간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를 제시했다.

오 지사가 제주를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예산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년 안에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단언키는 힘들다.

정부의 지원여부도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말 경남과 대전,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 국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설계될 우주산업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나 추가 클러스터 지정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은 자칫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수 있다. 지난 2018년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말을 믿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을 했으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되면서 제주이전 블록체인 기업들이 모두 제주를 떠났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원 지사가 제시했던 블록체인 산업 구상은 사상누각에 그쳤다. 오 도정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 그래픽 뉴스




## 열린마당

#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김 성 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인류에 큰 위협이 되어 왔다.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혼란이 많았고, 특히 서구권의 국가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들이 잦았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화차이 연구했다. 그 결과, 마스크 착용 빈도와 의도는 미국 참가자들과 비교해 한국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청 연구보고서에서 2020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법정감염병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를 제외하면 42.5%나 감소했다. 제2급 법정감염병 중 호흡기 감염병은 50%이상 감소했으며, 제4급 표본감시 대상인 급성호흡기 감염증도 76% 감소했다. 이러한 호흡기 감염병의 감소는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향상 및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요인 중 마스크 착용이 제일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월 30일 자정을 기해 일부 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다, 타인을 위해 밀접, 밀폐된 공간 등 일상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용구(향년 10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3일

아 들 홍경기 며느리 양옥낭
충기 김명렬
김승년
명기 고양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종곤(前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주지부 사무국장·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3일

부 인 강정우
아 들 이동철 며느리 김정희
동헌 현혜경
동남 신자영
딸 이정림 사 위 정은수

**상속한정승인공고**

•성 명 : 망 임납순(1931. 2. 25.생)
•최후주소 : 제주시 동화로1길 10, 416동 302호(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상기자는 2022년 12월 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3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22느단6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신설로55, 109동 502호 (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2023년 2월 3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영 주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 가능)

010-7328-1107, 010-6275-5200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종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